

SOCIETY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도로안내표지판이 오히려 혼란만...“정비 시급”



나주시 멸종위기 ‘황새’ 발견 고압 첩탐서 자연 번식 확인

전남 나주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발견됐다.

13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전남 나주 부덕동 고압 첩탐 위에서 황새가 4마리 새끼를 자연 번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새는 황새과에 속하는 겨울 철새다. 큰 새라는 뜻에서 ‘한새’라고도 불린다.

과거 국내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친숙한 텃새였으나, 20세기 중반 이후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주서식지였던 마을 주변 습지 감소와 훼손, 습지의 질 저하, 수질오염, 농약의 사용 증가로 인한 먹이 감소 등이 개체 수가 줄어든 원인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으로도 3000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아 국제적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조류이다.

한국은 종(種) 자체를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 야생생물1급이며 국가적색목록에 위기 동물로 지정돼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 학운초교·대성초교사거리 등 목적지 표기 없어 유촌동 등 벗겨지거나 흐릿...시 “내달부터 일괄 정비”

광주 지역에 설치된 도로안내표지판이 관리 부실로 시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일부 표지판의 경우 글자가 지워지거나 안내 문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 당국의 신속한 개선 조치가 요구된다.

13일 오전 광주 동구 유촌동 학운초등학교, 해당 도로는 무등산국립공원, 중심사를 찾는 차량과 사람이 지나가는 곳으로, 왕복4차선 도로 위에는 길 안내를 위한 도로표지판 2개가 설치돼 있었다.

2개 표지판(중심사에서 홍림교 방향)은 현 위치를 기준으로 좌회전 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동적골체육센터, 우회전 시 학운초등학교가 표기됐다.

하지만 직진 표지판에는 학운IC만 적혀 관리 부실로 시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지도를 보면 동구청과 학운IC가 같이 표기돼야 하지만 동구청 안내가 없었다.

같은 날 광주 남구 대성초교 사거리도 상황은 같았다.

하루 평균 5만여대의 많은 차량이 오가는 곳임에도 좌회전 안내 표기가 없었다.

도로안내표지판(까치고개에서 대성초교 방향)에는 직진 시 대인교차로, 천변차로, 우회전 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안내됐지만, 좌회전 시 해당 구간을 안내하는 문구가 없는 채 방치돼 있었다.

일부 안내 글자가 흐리거나 지워진 표



동구 유촌동 학운초교 사거리.

지판도 있었다.

하루 평균 3만여대의 차량이 오가는 서구 화정동 영주사거리의 도로안내표지판(영주체육관에서 서광주우체국 방향)은 고속도로, 버스터미널(직진 방향)의 안내 글자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게 방치돼 있었다.

서구 유촌동 칠성마을 사거리에 설치된 도로안내표지판도 시청·유덕동주민센터(좌회전), 고속도로(우회전)의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등 오랜 기간 방치돼 있어



서구 유촌동 칠성마을 사거리.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동구 불로동 웨딩의 거리에 설치된 TV 전광판 역시 장기간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됐다. 해당 TV 전광판은 광주시정 홍보를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꺼져있었다.

시는 지난 2월 전광판 수리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부품이 단종돼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모씨(36·동구 계림동)는 “새벽·야간에는 글자가 보이지 않아 초행길인 사람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위험까



서구 화정동 영주사거리.

지 있다”며 “오랜 기간 방치된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시일 내에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월까지 민원, 도로 순찰반을 통해 접수된 노후 표지판을 파악해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구간이 많다 보니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2025 광주분류의해’와 ‘광주세계야구대회’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월부터 일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지난해 지역 교권 침해 사례 ‘중·고교’ 집중

241건 중 196건...81.5%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의 대부분이 중·고등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교권 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241건(광주 150건·전남 91건)으로 집계됐다.

학급별로는 유치원 1건(광주 0건·전남 1건), 초등학교 41건(광주 26건·전남 15건), 중학교 143건(광주 90건·전남 53건), 고등학교 53건(광주 31건·전남 22건), 특수학교 3건(광주 3건·전남 0건)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전체 건수 중 81.5%가 중·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침해 유형별로는 ‘교육활동 방해’가 78건(광주 46건·전남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욕·명예훼손’ 69건(광주 54건·전남 15건), ‘상해·폭행’ 26건(광주 16건·전남 10건)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성적 괴롭힘·협박 15건

(광주 7건·전남 8건), 영상 무단합성·배포 11건(광주 0건·전남 11건), 불법 정보 유통 8건(광주 6건·전남 2건), 성폭력 범죄 7건(광주 5건·전남 2건) 등도 발생했다.

인행뿐만 아니라 신체적·디지털 기반 폭력까지 포함된 사례가 적지 않아 교사의 인격과 안전이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확인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지

속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다”며 “법과 제도가 일부 정비됐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침해로 고통받고 있고, 특히 상해·성폭력·영상 합성 등 중대한 유형이 늘어난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소중한 날엔 나에게 꽃다발을 선물하세요

- 꽃분이 로고는 사랑입니다.

꽃 · 식물 (꽃다발, 꽃바구니, 꽃박스, 화환)
공간연출 (행사, 포토존, 웨딩연출)
부케드라이 (부케액자, 부케무드등, 부케캐들)
귀피카페 (관살리올라세키)

동명동 핫플 플라워 카페

010. 6411. 7975

m.blog.naver.com/qwer44566 | instagram.com/flower_buni

광주 동구 제봉로 140번길 4

‘인생 드로잉’ 전시회

13일 오후 광주 서구청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나를 다시 그리는 시간 ‘인생 드로잉’ 전시회를 찾는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한국전쟁 때 어머니·동생 희생...75년 만에 배상

한국전쟁 당시 경찰의 불법 학살로 어머니와 신생아 동생을 잃은 유족들이 75년 만에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중민 부장판사는 유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족 7명에게 각 548만5600원-9626만6600원씩 총 2억1999만9100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어머니 A씨와 아이 B군은 1950년 전

남 영광군에서 군남지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아버지와 동생을 잃은 누나를 포함해 유족들은 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진실규명 결정을 토대로 큰딸을 비롯한 유족 7명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은 “당시 경찰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 모자를 살해, 헌법상 기본

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적 사실 명백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유족들이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70년 이상 지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 수준 또는 통화 가치 등이 상당히 바뀐 점, 민간인 희생 사건은 사회적 혼란 속에서 발생했다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고 상속 관계에 따라 각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산지역경제활력센터, 실내 미세먼지 측정 추진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는 아동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미세먼지 집중 측정·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산구지역경제활력센터와 ㈜브이원텍이 공동 수행하며, 광산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광산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 소속된 다중이용시설이 참여한다.

특히 ㈜브이원텍에서 직접 개발한 1등급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개소당 고정밀 미세먼지 측정기 2~3대씩, 그룹당 최대 12대가 동시에 투입된다.

센터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과 공기산업 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측정은 총 16개소를 4개 그룹으로 구

분, 그룹별 1주일 단위로 진행된다. 각 그룹은 연 2회(5~6월·9~10월) 측정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각 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센터에서 운영 중인 실내 미세먼지 측정기에서 측정된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미세먼지 상태를 점검한다.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PM1.0·PM2.5·PM10)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며,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추후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임정호 기자 jih415@gwangnam.co.kr